

## [이사야]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본문: 사 40:6-11]

- 하용조 목사/ 2005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네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포로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고난이 끝날지 기약이 없는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산은 낮게 하고, 굽은 길은 바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은 평탄케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메시지는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외치라’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존재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넷째는 ‘시온에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외치라. 기쁜 소식을 온 유다의 성읍에 외치라’입니다.

### ‘인간은 연약하다’고 외치라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셋째와 넷째 메시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흐는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셋째 메시지의 골자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은 구원론의 핵심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입니다.

6절을 보면 ‘외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포로생활이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인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바로 인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당사자가 자신인데 누가 누구를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방, 구원, 혁명, 개혁,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인간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한때 풀은 싱싱하게 푸르고 기운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풀은 곧 마르고 시들고 사라집니다. 나무나 풀에 핀 꽃이 얼마나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활짝 폈을 때는 황홀하지만 곧 시듭니다.

### 유한한 인간 vs 무한한 하나님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꽃과 같이 화려할 때가 있지만 곧 사라집니다. 향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도, 젊음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기운이 쇠하고 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찾아오는 주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불현듯 내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나무처럼 쓰러집니다. 화려했던 꽃도 사라지고, 무성했던 나뭇잎도 시듭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둘째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지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 삽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공간 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려 해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똑똑하고 의로운 것 같아도 배앓이 한 번에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셋째 인간은 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퍼뜨리고, 죄를 먹고 사는 성향이 있습니다. 한순간 착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악한 생각을 합니다.

넷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종교 창시자들은 모두 인간을 구원하러 왔지만 사실 그들마저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며,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인간다운 것은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인간론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

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능력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통째로 다스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으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십시오. 개혁할 수 있다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인간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이 영원히 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고, 테러를 하고, 미워합니다.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화해와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통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통일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해야 한다고 하면 날이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입니다.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구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첫째 시온에, 둘째 예루살렘에, 셋째 유다의 성읍에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소식, 악한 소식, 저주의 소식이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살리는 소식, 구원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축복권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민족을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말마다 어둡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일이 없고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폐허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을 합니다. 희망과 꿈을 노래합니다. 없어도 있다고 말하고, 불가능해보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경은 그럴지 않지만 부활, 희망,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할 것입니다.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자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매주일 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래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사야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을 옥하는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험담하는데 쓰지 말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럼 어디서 전해야 할까요? 9절을 보니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낮은 데서 이야기 하지 말고 높은 산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강한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말씀을 외치는 자가 시온, 예루살렘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곳입니다. 포로생활로 인해 붕괴되고 처참하게 변한 곳입니다. 그곳에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전해야 합니까? 9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보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 40:31) 유한한 인간을 보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을 보십시오. 시선, 관심,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가지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첫째, 강한 자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는 강한 용사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로 나타나셔서 마귀를 단칼에 물리치실 것입니다.

둘째, 친히 그 팔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팔로 원수를 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셋째,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손해를 보고,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받은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넷째, 보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게으른 자에게, 변절자에게 보우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성읍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 양들을 품에 안는 선한 목자

11절입니다.

“그는 목자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젓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0절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강한 용사로 그리는 반면 11절은 하나님을 양을 치는 선한 목자로 그립니다. 11절은 마치 시편 23편, 요한복음 10장과 같이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강한 용사와는 다른 이미지입니다.

둘째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십니다. 어린 양, 병든 양을 팔로 꼭 안아 인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젓먹이는 암컷을 인도하십니다. 갓 새끼를 난 어미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젓먹이는 어미양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양들에게 관심이 많십니다. 하나님은 각자 형편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도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만 어떤 때는 약자에게 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든 자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성읍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함과 위대함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예언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생활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게 하소서.  
기쁜 소식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유다 성읍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평양에, 아프간에,  
이라크에, 뉴올리온스에 전하게 하옵소서.  
고통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강한 용사로, 선한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림처럼  
그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